

2024년 4월 21일(주일) 제1679호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 오늘은 장애인주일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CANTANTE

DOMINO

오늘은 장애인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 사람이 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장애인주일을 맞아 사랑부(부장:장창수 안수집사)의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 - 2024년 항존 직분자 선거 일정 -

### 제17대 장로·제16대 안수집사·제15대 권사 선출

5월 5일(주) 찬양예배 후 특별 제직회

5월 19일(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

지난 4월 17일(수)에 열린 정기당회에서 2024년 항존 직분자 선거 일정이 통과되어 제17대 장로 및 제16대 안수집사, 제15대 권사를 공동의회에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4월 28일(주) 순례자에 5월 5일(주)에 열리는 특별 제직회에서 배수 공천하게 될 장로 후보 명단과 사진이 나가고, 특별 제직회에서 OMR 투표를 통해 10명의 후보를 배수 공천합니다. 이후 5월 12일(주) 순례자에 5월 19일(주) 열리게 될 공동의회에 올릴 장로 후보 10명, 안수집사 후보, 권사 후보의 명단과 사진이 나갑니다.

5월 19일(주) 공동의회에서는 OMR투표로 5명의 장로를 공동의회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고 안수집사 및 권사는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후보 선출은 당해 연도 은퇴예정자는 안수집사, 권사 후보에서 제외하고, 시

무 기간이 2년 이상 남지 않는 사람은 장로 후보에서 제외하여 장로 선출 후보자의 연령은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68세)-198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40세)로 하고, 입교인으로 7년 이상 경과하고, 안수집사나 권사로 1년 이상 봉사하고, 예배 출석과 십일조 생활, 봉사부서를 섬기는 자로 합니다.

또한 안수집사 후보자의 연령은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69세)-198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35세), 권사 후보자의 연령은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69세)-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50세)로 하고 입교인으로 5년 이상 경과하고, 집사로 3년 이상 봉사하고, 예배 출석과 십일조 생활, 봉사부서를 섬기는 자 중에서 당회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합니다.

은혜 중에 진행되는 항존 직분자 선거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가 먼저라!

###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 섬김위원 추가

#### \*예배위원회

- 안내: 1부 박미정 박정희 황금선  
3부: 성춘모 정희자  
찬양예배: 옥종호 손지희
- 봉헌: 1부 이상섭  
2부 김진숙 최영란 최현인 모양순 유근종
- 금요기도회: 윤서영

#### \*찬양위원회

- 임마누엘찬양대 부대장: 이현정1
- 시온찬양대 부대장: 정희자
- 가브리엘찬양대: 김양희 박길자 유남식 유미영 윤진희 정수연 최용준 황인형
- 할렐루야찬양대: 김유진 양도현
- 임마누엘찬양대: 김경민6 김희 박윤호3 이현정1 주하민 홍석현
- 베들레헴찬양대: 안홍희 정주원4 최홍열
- 그레이스앤드벨파이어: 노선균 장유선
- 은빛찬양대: 고안순 곽선자 김경숙5 김희진1 심화숙 이용자 이화숙 전성희 정인주 주하인 최홍열
- 호산나찬양대: 백정숙 장지애 홍성미
- 시온찬양대: 박길자 허숙
- 새벽기도회 피아노: 안효주

#### \*교육위원회

- 유아부: 정은지 윤서영 · 유치부: 한문영

#### \*전도위원회

- 70인전도대: 김복희2 박순복 유남식 최임수 최종희

#### \*교구위원회

- \* 3교구 3-1 다락방장 이용호 / 3-1 부다락방장 임광호 라지용 신재곤 / 3-7 다락방장 박해자 / 3-8 다락방장 박미영3 / 3-8 부다락방장 문은영 강인영1 / 3-10 부다락방장 김창훈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장애인을 사랑한다 함은

해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며 한국교회는 대체로 4월 세 번째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과거 농경사회 시절에는 선천적 장애인이 많았으나 사회의 발전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후천적 장애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60만여 명에 이르는 각종의 장애를 지닌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야 할 형제자매이며 거룩한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손달익 위임목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을 섬기듯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분명 작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가난한 이웃들, 외국인 근로자들, 새터민 이웃들, 심신장애를 가진 분들 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작은 자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만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사랑을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마 8:17에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으로 묘사했고 마 9:35에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함으로 약하고 작은 자들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사랑과 돌봄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말씀은 장애를 가진 이웃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과 돌봄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이웃들은 사회적 소외, 경제적 어려움, 삶의 불편함, 편견과 무시 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돌봄과 섬김을 교회에 우선적 사명으로 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 오순절 성령강림 후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한 첫 기적이 성전의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장애인이 고침 받는 사건이었음은 교회의 우선적 사랑과 배려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장애를 가진 이웃에 대한 극진한 섬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긴다 함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 1.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할 믿음의 고귀한 동역자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긍휼의 대상이거나 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드러나 보이는 지체보다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중요하듯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존중받는 소중한 지체들임을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 2. 사랑으로 기도하고 정성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은 일생동안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시는 일에 구체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손 마른 사람 등 많은 장애를 호소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수로보니게 지방으로 가서 한 어린 소녀를 치유하시고 바로 갈릴리로 귀환하셨습니다. 이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정성으로 섬기시는 것이 성도들의 소명입니다.

### 3. 장애인 선교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260만 명을 넘나드는 장애인 인구는 우리 선교 대상의 무한 확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향한 구원과 치유, 사랑과 축복의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기적처럼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생산하기 위해 교회는 더욱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앞날을 책임 있게 창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날을 위한 장애인 선교에 함께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 건강한 신앙인 사랑부



공성광 집사  
(사랑부 회장)

살롬!  
2024년도 사랑부 회장으로 섬기게 된 공성광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서울교회 사랑부를 소개하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부는 주일 10시 15분부터 603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35명 정도의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기도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박준희 선생님과 사랑부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준비하며, 장장수

부장님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양정호 목사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부 친구들과 구성된 사랑부 사론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부에는 부서의 이름처럼 사랑이 많은 분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를 오랜 기간 정성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권사님들은 저희를 위해 때

마다 맛있는 간식과 정성스런 음식으로 섬겨 주십니다. 이처럼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사랑부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며, 우리 교회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부를 기억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6지역, 호산나대학 김민혁 학생에게 3년간 장학금 2,400만 원 전달

4월 17일(수) 호산나대학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박광범 총재) 6지역 최승균 지역위원장을 비롯하여 기부자들과 구세군서울후생원(박준경 원장), 호산나대학(이동귀 학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재학생 김민혁 학생에게 장학금 2,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3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6지역에서 구세군서울후생원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던 중 호산나대학에 입학하게 된 민혁 군이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달식에서 최승균 6지역위원장을 비롯하



여 박광범 총재, 인사클럽, 동원클럽, 한양클럽, 신화씨앤씨(주) 김흥국 대표이사, (주)글로벌창업연구소 한준섭 대표이사, 원삼호(당선제2부총재), 이광원(8지역위원장) 라이온은 민혁 군이 졸업할 때까지 3년간 2,400만 원을 지

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최승균 6지역위원장은 “함께 참여해 주신 라이온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민혁 군이 영양보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민혁 학생은 “라이온스협회에서 저를 위해 3년간 학비를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저도 호산나대학 졸업 후 직장인이 되었을 때 어려운 이웃이나 라이온스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교구위원회 선교유적지 전주·군산 순례길을 다녀와서



김인아 권사  
(2교구 간사)

4월 1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선교유적지인 전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전주-금산-군산인데 한남대 송현강 교수님께서 해설해 주신다니 기대와 감사한 마음으로 시편126편 말씀과 함께 경건회를 가졌습니다.

노제현 장로님께서는 상당한 양의 선교역사 퀴즈와 커피상품권을 준비해 주셔서 구굴링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전주에 다다랐습니다.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빨간 티셔츠 차림으로 나타나신 송 교수님과 교육선교지 신흥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전주스테이션(선교거점)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인 레이놀즈(Reynolds,W.D.)의 집으로 김창국이라는 한 명의 학생으로 근대교육을 시작한 곳입니다. 본관은 불에 타고 현관포치만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 인턴관의 선교사 인턴은 국회의원 인요한의 할아버지라는 설명을 들으며, 여의사 마티엥골드의 전주행 파송으로 130년 호남 기독교 의료선교가 시작된 “예수병원”자리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인턴제도를 도입한 수련병원이 시작된 곳입니다. 열악한 사람들을 맹장수술로 살리다 보니 비기독교인에게도 예수(한문표기 야소)는 굉장한 믿음의 말로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병원이야말로 미국 남장로교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조선에 보내주신 선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선교사 주거지와 가까이 남아있는 선교사 묘역들은 아득한 세월을 견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제로 이동하여 한옥의 아름다운 금산교회를 찾았습니다. 지주 조덕삼과 며슴 이자의 중에 이자익이 먼저 장로직분을 받자 조덕삼은 며슴 이자익의 신실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마



1936년에 건축된 전주 신흥학교 대강당 앞에서 교구위원들

19:30)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외관 형태는 ‘ㄱ’자 구조 한옥이라 기억자교회라고도 불리며 검은 마루바닥에 남녀 구별하여 예배드린 흰 가림막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했을 당시 조선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 군산스테이션에 도착하자 1896년 전킨(Junkin,W.M) 선교사와 드루(Adamer D. Drew) 선교사가 뿌린 복음선교·의료선교의 씨앗 구암교회를 보았습니다. 전킨의 집에서 장인택 포함 세 사람이 주일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고 이후 군산항이 개항되면서 선교를 돕는 배가 정박하기 좋은 궁말언덕으로 신축해왔습니다. 선교영역을 넓히며 부흥하여 영

명학교를 세우면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새로 건축된 예배당이 되었고 그 앞길은 한강 이남 최초 3.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구암동산 태극바람개비를 따라가자 우뚝 선 영명학교(현 제일고교)에 마련된 3.1운동 100주년기념관을 둘러보았습니다. 1903년에 소학교를 시작으로 고등과를 병설하여 민족운동의 중심이 되자 일제탄압에 고등과를 중단시켰고 1940년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자진 폐교하였습니다. 영명학교 출신으로 연희의전원에 다니던 김병수가 독립선언서를 몰래 영명학교에 전달했다는 기록을 보니 조선에 보내진 의료선교·복음선교·교육선교가 결국 항일운동을 이끌어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이 되어 우리가 밟고 있는 스테이션(선교거점)! 이는 단지 공간의 의미를 넘어 우리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군산 앞바다가 어둑해지고 1952년 화교양 조석이 장엄한 맛집 빈해원을 끝으로 가족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은 순례길 탐방을 마쳤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청춘을 바쳤던 선교사님들의 구별된 삶의 흔적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삶을 닮아야겠습니다. 후대에까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방법으로선교스테이션을 보존하는데 우리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발 경건회 때 부르던 구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를 되뇌이며 길이 남을 추억의 교구수련회를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주 지역 선교사 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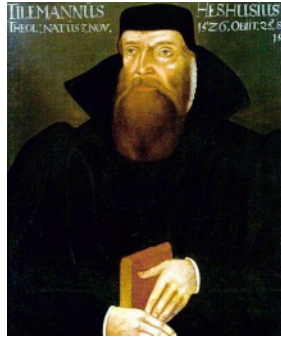
# 1강: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작성 배경과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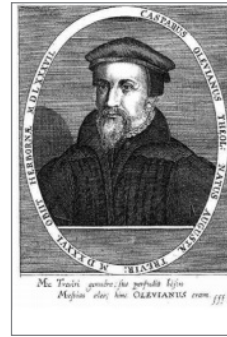
프리드리히 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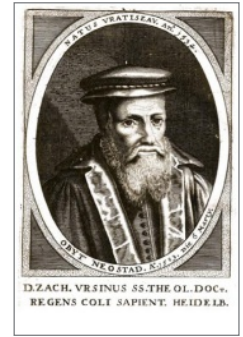
빌헬름 클레비츠



틸레만 헤슈시우스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



우르시누스

## - 교리교육에 진심이었던 프리드리히 3세 -

팔츠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2세와 그의 후임자 오토하인리히 때부터 팔츠 지역의 종교 개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촌 오토하인리히로부터 선제후 자리를 물려받은 프리드리히 3세는 자리에 앉자마자 강력한 루터파 옹호자이며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인 틸레만 헤슈시우스와 칼뱅주의자이며 그 대학 학생인 빌헬름 클레비츠 사이의 성만찬 논쟁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프리드리히 3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하였고, 헤슈시우스가 떠나면서 두 개의 중요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대학에는 새로운 신학 교수가 필요하게 되었고, 교회에는 새로운 설교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 3세가 교회를 위해서 청빙한 사람은 올레비아누스였고, 대학을 위해서 청빙한 사람은 우르시누스였습니

다. 이 두 사람의 도착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완성되자, 프리드리히 3세는 자신이 친히 서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서문에는 왜 프리드리히 3세가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서문에서 선제후는 다음의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1. 영주의 임무:** 다스리는 자들은 자신의 영지 내에서 선한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도록 힘쓸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무엇보다 전능하신 분과 그분의 거룩한 구원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힘써 알도록 백성을 꾸준히 훈육하고 인도할 의무도 있다."

**2. 영적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 비록 그의 선임 제후들이 팔츠의 개혁을 위한 씨앗을 뿌

렸지만, 그 노력들은 많은 이들이 바라던 만큼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결과가 그렇게 빛을 바랬던 중요한 이유 하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충분히 쏟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무관심하거나" "아예 기독교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계 없는 교육을 받거나" 혹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질문들로 당혹스러워한다." 많은 경우에 네 가지 모두가 다 해당되어 왔던 것 같다.

**4. 새로운 교리문답의 필요성:** 이 새로운 요리문답은 "목사와 교사들이" "교회와 학교에서" 공히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럼으로써 교사와 설교자들이 "매일 가르치는 것이 달라지거나 그릇된 교훈을 도입하는" 일이 없이 일관된 가르침을 줄 수 있게 하였다.

##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 -

이와 같이 프리드리히 3세는 교리문답을 통해서 어린이/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젊은이, youth)들이 기독교 교리와 관련하여 무관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안에 담긴 내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르시누스 한 사람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만든 공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프리드리히 3세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은 이 도시의 전체 신학 교수들과 교회의 모든 감독들과 탁월한 목사들의 조언과 협조를 얻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리문답 또는 일련의 교훈의 요약을 하나

님의 말씀을 따라 독일어와 라틴어로 준비하였노라."

프리드리히 3세의 신앙과 지도력에 의해서 작성될 수 있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강사 양정호 목사 소개 -



양정호 목사

- 충남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B.A.), 부전공 영어영문학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Th.M., 역사신학전공)
-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School of Religion (M.A./Ph.D.)
- 서울여대 대학교회 및 모세골공동체 교회 부목사
- 대전신학대학교 조교수
- 현) 장로회신학대학교 조교수, 서울교회 협동목사

고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원 종교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Ph. D. in Women's Studies in Religion)

귀국 후 서울여대 대학교회에서 대학교회 청년부와 서울여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조교수로서 학술지 『장신논단』 편집총무 및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편집인으로 책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역사신학 분야 강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만시간의 비밀』, 공저로는 『21세기 공공리더십』, 『내양을 먹이라:교회사 속의 목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혼의 여정』 등이 있습니다.

양정호 목사는 중세 여성 영성 분야에서 중세여성신비가 'Julian of Norwich의 고난의 영성 및 감성의 신학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

**성도 동정**



- 개업  
2교구 전광환 권사  
uTour50+, 루터의 종교개혁지 탐방과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TEL:010-6275-6220, 주소:강남구 도곡로3길 13



- 3교구 배흥기 성도 PKF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연임(백난희 권사 부군)

- 5교구 김고은 성도의 모친·김범석 성도의 장모 국회의원 당선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의원

**식사 제공**



- 6교구  
김재중1 집사·김유경 권사 가정  
(김유경 권사 모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70인전도대 4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3.31	자원자	스데반회	4.3	도르가, 루디아, 뵤뵤
4.7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4.10	국회의원선거
4.14	자원자	바울, 엘리야	4.17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4.21	자원자	모세	4.24	리브가
4.28	자원자	이삭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매체인 성경통독			
4월22일	월	왕상 17-18	레26	시33	전9	단1
4월23일	화	왕상 19-21	레27	시34	전10	단2
4월24일	수	왕상 22	민1	시35	전11	단3
4월25일	목	왕하 1-4	민2	시36	전12	문1
4월26일	금	왕하 5-7	민3	시37	아1	히1
4월27일	토	왕하 8-10	민4	시38	아2	히2
4월28일	주일	왕하 11-14	민5	시39	아3	히3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코람데오(Coram Deo) 신앙으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2. 서울교회에 제4대 담임목사 청빙과정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항존직 선거를 통해 신실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3. 이 땅에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어지럽혀진 세상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 내려 주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박지연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